

영웅·사랑·전쟁...시대를 품은 시의 향연

시의 역사

존 케리 지음, 김선형 옮김



범박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은 시인과 시인이 아닌 사람들로 나뉜다. 그만큼 시를 쓰고자 하는 문정도 많고 시를 사랑하는 애호가들도 많다. 도대체 시의 어떤 매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걸까?



단테의 '신곡'은 지옥, 연옥, 낙원을 방문하는 기상의 여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신곡'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 <소소의책 제공>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시를 쓰는 시인은 드물다. 그럼에도 시를 쓰려는 사람뿐 아니라 애호가들도 늘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각 시대마다 뛰어난 시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영감과 상상력으로 독자들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창작의 열망을 북돋웠다.

고대 서사시부터 현대시까지 감성의 세계를 아우른 '시의 역사'는 망망한 언어의 바다에서 시를 건져 올렸던 당대 대표 시인들의 작품과 이야기가 나온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도서 평론가이며 맨 부커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존 케리가 저자다. 그동안 존 케리는 '지식의 원천', '역사의 원천' 등을 역했으며 에밀리 디킨슨 연구서를 발간하는 등 의미있는 책들을 펴냈다.

'시대를 품고 삶을 읊다'라는 부제처럼 이번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와 시인들에 얽힌 뒷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타임스' 최고의 문학도서를 비롯해 주요 매체가 인정한 화제작으로, 그만큼 시를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책이다.

저자는 고대 서사시부터 현대시까지 시대별로 유명한 시인과 대표작을 인용해 시의 역사를 조명한다. 호메로스를 비롯해 단테, 초서, 셰익스피어, 말로, 존 던, 존 밀턴, 워즈워드, 키츠와 셸리, 바이런, 괴테, 하이네, 릴

케, 윌트 휘트만, 엘리엇, 푸시킨 등 한번쯤 들어봤을지 한 시인들이 소개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은 '길가메시 서사시'다. 장장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어졌다. 누가 지었고 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글자가 점토에 썩기 모양의 흙을 새긴 것으로 설명문자라고 불린다.

설명문자를 해독하는 비결이 소실되는 바람에 '길가메시'는 오랫동안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1870년경 런던의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대영박물관에서 점토판을 연구하다가 암호를 풀었다. 길가메시는 위대한 전사로 당시 벽돌로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자 신들은 백성을 억압하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 야성의 인간 엔키두를 만들기에 이른다.

중세 유럽의 거장으로는 단테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위대한 작품 '신곡'은 지옥과 연옥, 낙원을 방문하는 기

의 여행을 그렸다. 단테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지옥의 형벌을 상상력으로 재현했는데 "잔혹성에 관한 천재적인 관심"이 드러난다. 특히 작품에서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는 장면의 묘사는 소름이 끼칠 정도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인들로는 셰익스피어와 말로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알려진 셰익스피어는 희곡이 아닌 시를 창작했다. 가장 유명한 시는 소네트다. 여름을 소재로 사랑을 노래했던 소네트가 유명하다. "나 그대를 여름날에 비할까? / 그대는 더 사랑스럽고 온화하네. / 거친 바람은 5월의 사랑스러운 꽃봉우리를 흔들고 / 여름의 임대기간은 너무나 짧지만..."

셰익스피어뿐 아니라 시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애송된다.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 한 편의 시를 휴식 삼아 읽어보길 권한다. <소소의책·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화학자이자 교수, SF작가로 이름을 알린 박재식이 '스스로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달과 다누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우리는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달에 가려고 할까? 달 탐사선, 달 착륙 조작설, 늑대인간, 드루이드, 삼국사기에 이르기까지 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아우른다. <동아시아·1만6000원>

▲킬러 씽킹=국내 최초로 역대 아이디어를 파는 컨설턴트 박성연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생각의 기술 '킬러 씽킹'을 펴냈다. 발산적 사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도출해내는 사고의 전략을 알려준다. 조직을 혁신하려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아이디어를 10배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를 위한 강력한 생각 도구. <브라이트·1만6000원>

▲천사의 게임=위대한 작품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힌 천재 작가 다비드 마르틴과 그 갈망을 집어삼키려는 파괴적인 유혹을 그린 이 작품은 모방이 불가한 완전 무결한 이야기로 스페인 작가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가 전 세계 150만 독자를 열광하게 한 '바람의 그림자'의 프리퀼이자, 이후 '천국의 수인', '영혼의 미로'로 이어지는 '잊힌 책들의 묘지 4부작'의 두 번째 작품. <문학동네·2만7000원>



▲페퍼민트=데뷔작 '유원'으로 제13회 창비청소년문학상과 제44회 오늘의작가상을 거머쥔, 한국문학의 새로운 얼굴 백운우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 저자는 이번 작품에서 돌봄과 죽음, 용서와 화해를 가로지르며 한층 확장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열아홉 살 시인과 해원이 들어킬 수 없이 어긋난 두 주인공의 관계와 내면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감각이 돋보인다. <창비·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는 마음대로 나지=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강인승 작가가 새 이야기를 팔랑이며 돌아왔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스스로의 뜻대로 행동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 '마음껏 말해도 괜찮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응원을 전하는 작품이다. <주니어김영사·1만2800원>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것=코로나19 때문에 생일 파티도 못 하는 혜수는 절친 윤아와 함께 놀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윤아에게는 소식 이 없고, 학교에서는 뜻밖의 연락이 온다. 혜수가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것을 발견하고 지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소 작가의 작품. <청아람주니어·1만2000원>

▲백백백리 천백지용=백은하 작가의 꿈터 어린이 39권. 평소 잘난 척하며 공부 잘하고 축구 잘하던 아이 천백지용이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면서 삼악동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학교폭력의 상황 속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꿈터·1만2000원>

그 시절 그 영화...시네필 5인방이 들려주는 영화 사랑법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

주성철·배순탁 외 지음



'스크린', '로드쇼', '씨네 21', '키노', '필름 2.0'

영화 잡지 전성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영화배우 사진을 오래 코팅 책받침을 만들었다.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의 특집기사와 배우 인터뷰 등을 훑어보며 이번주에는 어떤 잡지를 살까 고민하기도 했다. 물론 주간지, 월간지를 모두 사는 이들도 있었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우리가 영화를 애정하는 방법'은 1990년대를 관통하며 영화를 즐겨온 시네필 5인방이 들려주는 각자의 영화 사랑법이 담긴 책이다. '영화

는 선생이었고,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무엇보다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주성철 전 '씨네 21' 편집장, 이화정 전 '씨네21' 취재팀장, 김미연 JTBC '방구석 1열' PD, 배순탁 음악평론가, 김도훈 전 '허밍포스트 편집장'이다. 필자들은 이 책의 기획 과정에서 탄생한 유튜브 채널 '무비컨조'를 통해 영화팬들과 만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들다. 필자들이 들려주는 영화 관련 에피소드와 책에서 언급되는 영화들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가 애정하는 영화이기도 해서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영화와 관련된 재미나고, 애뜻한 에피소드들을 갖고 있는지, 책을 읽으며 "아, 이들은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필자 모두 만만찮은 '글빨'을 갖고 있어, 읽는 내내 즐겁다.

각자의 취향도 뚜렷하다. '영웅본색'을 50번도 더 넘게 보고 '두번째 흥풍에 가게 된다면'을 펴낸 주성철은 흥풍 영화 마니아고, '공포영화에서 공포를,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을, 또 영적 존재들과의 친밀감을 익혔다'는 김미연

PD는 '오멘', '곡성' 같은 오컬트 영화를 사랑한다. 또 '방구석 1열'의 제작 과정, 영화잡지판의 이야기 등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궁금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 책이 주는 미덕 중 하나는 필자들이 언급하는 다양한 영화를 통해 각자의 영화 관람사(史)를 한번쯤 추억하게 한다는 점이다. 나도 봤던 영화에는 반가움을 느끼고, 접하지 못한 영화는 '필름 리스트'에 담아둔다. 필자들이 언급한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매그놀리아'는 기억이 가물가물해 다시 챙겨보고 싶게 만든다.

흥미로운 건 다양한 '양케이트' 조사다. 좋아하던 극장과 돈 주고 본 첫번째 영화는?, 가장 많이 본 영화의 횟수는?, 나를 잘 못 이루게 만든 배우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 대사는?, 모두가 찬양하지만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영화는? 등이다.

각각의 양케이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시절의 풍경, 그 시절의 사람들과까지 소환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푸른솔·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